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김 성 은 선임연구위원
송 원 일 부연구위원
최 흥 일 전문연구위원

요약¹⁾

- 본 연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에 이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을 기반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이행 및 학교와 지역자원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함.
- 학업중단 예방 업무 경험 교사와 지역사회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상황 및 요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지역자원 연계 형태와 실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부서와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자원맵 구축 및 관리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더 나아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등 전담 회의기구를 설립하여 현존 연계자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함.
-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행정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 참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이와 더불어 학생 안전 대책, 출석 인정 등 기존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수탁 연구과제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방안'을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시행 예고

-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그간 정책적으로 추진됐던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법령 제정을 통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내용과 체계를 구체화한 것임.
- 기존 정책 및 법령과 다른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황과 요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고, 학생의 정보가 원활히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장애, 기초학력 부진, 다문화, 학교폭력, 학업중단 예방 등 각각의 사업이 대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학생 요구에 맞춘 통합 운영·지원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

▶ 위기 학생에 대한 정보가 학교와 지원기관 간 연결되고, 외부자원을 활용한 교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교는 개방체제라 할 수 있음(Scott & Davis, 2014).

-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은 이미 정책과 연구(i.e. 정현주, 2015; 송효준, 양경은, 2018; 이윤진, 김광병, 2024)를 통하여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학업중단 예방의 영역에서도 정부는 이미 2023년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포함됨(관계부처합동, 2023).

▶ 현실적으로 학교와 외부 자원과의 연계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공통된 어려움을 호소함.

- 학생맞춤통합지원 실천사례 연구(황영애, 2024)에서는 지역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연계 어려움으로 들었고, 학교폭력 관계 기관의 연계 경험연구(정현주, 2015)에서는 외부 인력과 기관에 대한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 학교의 폐쇄성을 지적하였음.
-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와 지역자원의 연계 장애 요소로 상대측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 즉 서로 연계·협력해야 할 대상 각각이 같은 이유로 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원활한 이행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외부 자원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

- 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함께 조사하여 상호 간 이견을 파악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우수사례 조사를 통하여 어려운 현실 여건을 타개했던 공통적 사항에 대해서도 도출함.

2. 연구방법

▶ 조사대상

- 교원조사의 경우 1년 이상 학업중단 예방 업무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875명을 대상으로 함.
- 기관조사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8개 유형의 청소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 기관당 1명 조사/팀장급 이상/해당기관 경력 1년 이상/관련기관 경력 3년 이상.
 - 300개 기관 목표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315개 기관(응답자 315명)이 조사에 참여.

▶ 조사변인

- 지역사회 연계기관 실무자 대상.
 -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에 대한 각각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관의 위치와 설비, 인력 등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연계 형태와 실현 가능성, 연계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함.
- 학교 교원 대상
 - 학교-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과 그 이유, 연계 현황(서비스, 기관유형 등), 연계 요구 정도, 필요한 연계 형태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함.

3. 연구결과

지역사회 기관 현황 및 연계 욕구

▶ 조사기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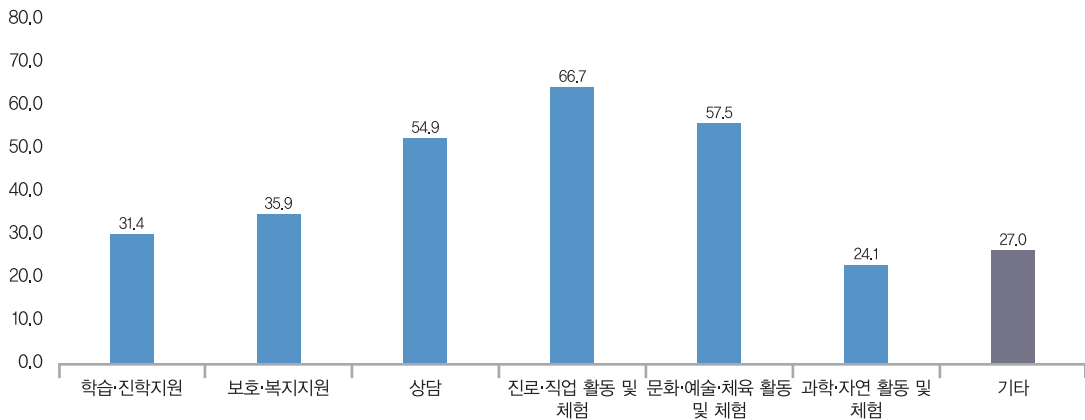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315개이며, 기관유형은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진로진학 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특화시설 총 8개로 구성됨.
- 직원규모는 5명 이하인 경우가 34.0%, 11명 이상 33.3%, 5명 이상~10명 이하 32.7%로 나타났으며 기관 당 평균 10.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
- 이용자 수는 800명 미만 33.7%, 9,000명 이상 33.3%, 800명 이상~9,000명 미만 33.0%로 나타남.

[표 1] 조사 기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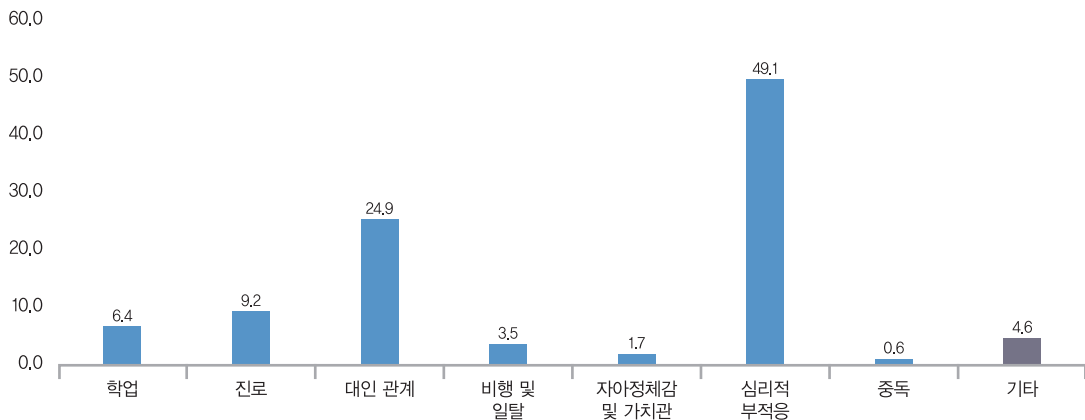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기관유형							
			꿈드림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진로진학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 특화시설
사례 수(개소)		315	56	50	41	6	54	51	51	6
직 원 규 모	5명 이하	34.0	75.0	22.0	19.5	66.7	18.5	52.9	7.8	16.7
	5명 이상~ 10명 이하	32.7	14.3	44.0	68.3	33.3	22.2	33.3	25.5	16.7
	11명 이상	33.3	10.7	34.0	12.2	0.0	59.3	13.0	66.7	66.7
	평균(명)	10.6	5.5	11.3	8.5	4.5	16.8	6.0	15.0	18.5
이 용 자 수	800명 미만	33.7	58.9	26.0	39.0	33.3	11.1	0.0	70.6	0.0
	800명 이상~ 9000명 미만	33.0	26.8	40.0	56.1	16.7	22.2	33.3	27.5	33.3
	9000명 이상	33.3	14.3	34.0	4.9	50.0	66.7	66.7	2.0	66.7

▶ 프로그램 현황

- 기관 운영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별 비중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상담'을 1순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기관이 가장 많았음. 1~3순위 응답을 집계한 결과 '진로·직업 활동 및 체험'을 가장 많이 운영한 것으로 응답되었음.
- 주요 상담 주제는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상담'이 49.1%, '대인관계' 24.9%, '진로' 9.2%, '학업' 6.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지역사회 기관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직업 활동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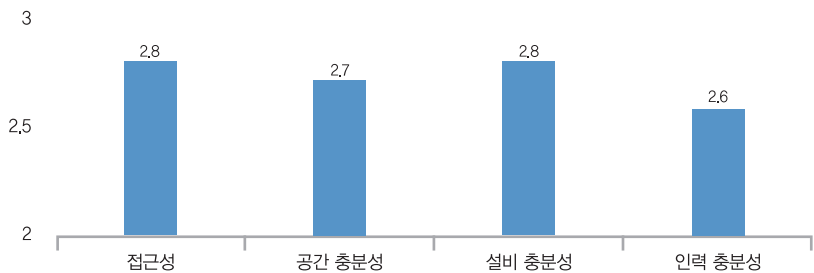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운영 프로그램



[그림 2] 주요 상담 주제

▶ 기관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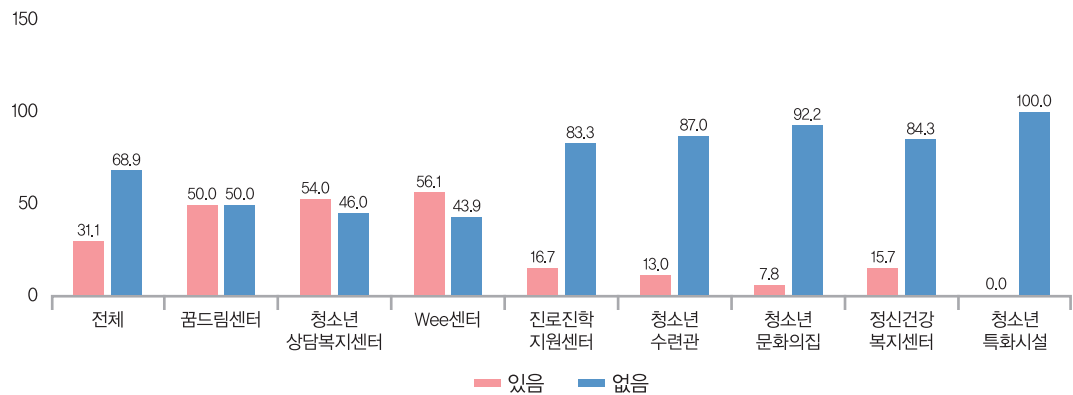
- 지역사회 기관 여건 조사 결과, 접근성 4점 만점에 평균 2.8점, 공간 충분성 2.7점, 설비 충분성 2.8점, 인력 충분성 2.6점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사회 기관들은 동일 지역 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접근성과 공간 및 설비,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기관 여건

지역사회 기관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험

- 전체 315개의 기관 중 31.1%만이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8.9%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10개 기관 중 3개 기관만 연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간의 적극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4]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험

기관과 학교 간의 가장 적절한 연계형태

- 지역사회 기관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연계 형태는 ‘학교에서 학생을 기관에 인계(95.9%)’해주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 또는 욕구를 반영(87.3%)’하는 형태, ‘운영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86.0%)’하는 형태, ‘개별 학교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82.9%)’하는 형태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가능성 면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기관에 인계(88.33%)’해주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운영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68.9%)’하는 형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 또는 욕구를 반영(68.3%)’하는 형태, ‘기관에서 학교에 강사를 파견(56.2%)’하는 형태 순으로 응답되었음.
- 종합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기관에 인계’해주는 형태의 연계가 가장 필요하며, 현실 가능하다고 응답됨.

[표 2] 기관과 학교 간의 가장 적절한 연계형태

구분	필요성		가능성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가능하지 않음	가능함
기관에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함	22.5	77.5	43.8	56.2
학교에서 학생을 인계함	4.1	95.9	11.7	88.33
개별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17.1	82.9	52.4	47.6
연합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23.5	76.5	51.1	48.9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학교 의견 반영	12.7	87.3	31.7	68.3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 학교 의견 반영	14.0	86.0	31.1	68.9
학교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18.7	81.3	64.4	35.6

▶ 기관과 학교 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필요 및 개선 사항

- 학업중단 관련 기관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등의 인식변화와 협력
- 연계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의 강화
-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제고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관의 학업중단 조기 개입
-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구분
- 효율적인 연계 방안, 연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학교 현황 및 연계 욕구

▶ 조사 대상자 특성

- 전체 조사대상자 875명 중 여성 응답자가 69.7%였으며, 40대가 40.3%로 가장 많았음.
- 교급은 초등교사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부장교사가 49.9%로 가장 많았음.
- 교직기간은 20년 이상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기간은 3년 미만이 55.8%로 가장 많았음.

▶ 학교의 지역사회 기관 연계 필요성

- 전체 대상자 875명 중 88.4%는 필요하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교급별로, 초등학교 대상자의 86.8%(5점 만점 평균, 4.28점), 중학교 담당자의 91.5%(4.35점), 고등학교 담당자의 87.7%(4.29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대부분의 학업중단 예방 업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학업중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됨.

[표 3] 지역사회 기관 연계의 필요성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평점
전체	401(45.8)	373(42.6)	70(8.0)	22(2.5)	9(1.0)	875(100)	4.30
초등학교	173(45.1)	160(41.7)	34(8.9)	12(3.1)	5(1.3)	384(100)	4.28
중학교	134(47.7)	123(43.8)	15(5.3)	7(2.5)	2(0.7)	281(100)	4.35
고등학교	94(44.8)	90(42.9)	21(10.0)	3(1.4)	2(1.0)	210(100)	4.29

▶ 학교의 지역사회 기관 연계 필요이유(2가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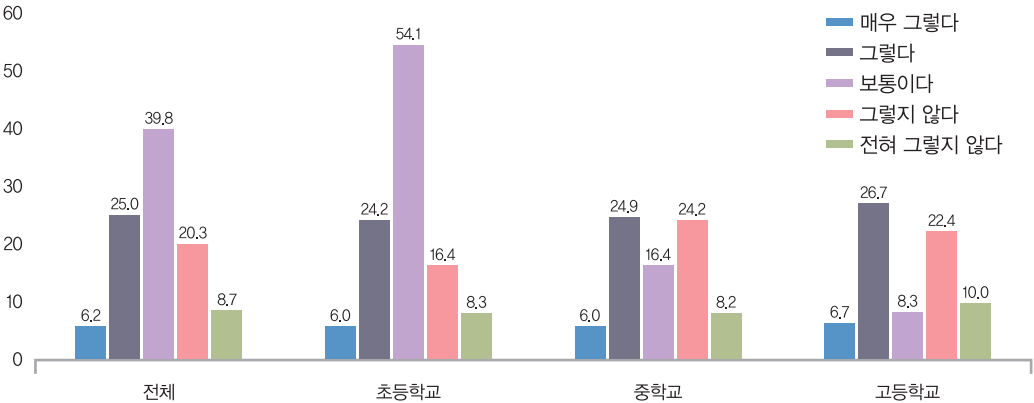
- 전체 응답 중 ‘학교에서 어려운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29.7%)’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29.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 학교 내 한정적인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4] 지역사회 기관 연계의 필요 이유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출석률, 사회성, 적극성 등)	145(21.8)	91(17.7)	57(15.5)	293(18.9)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 감소	40(6.0)	37(7.2)	23(6.3)	100(6.5)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9(1.4)	6(1.2)	5(1.4)	20(1.3)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181(27.2)	165(32.1)	106(28.8)	452(29.2)
학교에서 어려운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180(27.0)	154(30.0)	123(34.2)	460(29.7)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지	19(2.9)	11(2.10)	10(2.7)	40(2.6)
학업중단 예방 업무담당자의 부담 감소	87(13.1)	46(8.9)	34(9.2)	167(10.8)
학교 이미지의 개선	0(0.0)	0(0.0)	1(0.3)	1(0.1)
예산의 사용	1(0.2)	1(0.2)	1(0.3)	1(0.1)
기타	4(0.3)	3(0.6)	5(1.4)	12(0.8)
계	666(100)	514(100)	368(100)	1,548(100)

▶ 지역사회 기관 연계 현황

-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31.2%는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사하게 29.0%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교급별로, 초등학교 담당자의 30.2%, 중학교 담당자의 30.9%, 고등학교 담당자의 33.4%가 그렇다고 응답함.
-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는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 경험에 대해 질문한 문항에서도 전체 315개 기관 중 68.9%가 연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여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 지역사회 기관 연계 현황

▶ 학교의 지역사회 기관 연계 경험(서비스 분야/중복응답)

-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어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상담 서비스 연계'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 및 직업 관련 연계' 17.9%, '학습 관련 연계' 16.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됨.
-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상담에 대한 요구'가 5점 만점, 평균 4.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로 및 직업 4.48점, 보호 4.23점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지역사회 기관 연계 경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추가 연계 필요성 정도
학습	199(29.9)	94(18.3)	72(19.6)	365(16.3)	4.15
진로 및 직업	154(23.1)	134(26.1)	113(30.7)	401(17.9)	4.48
상담	320(48.0)	254(49.4)	187(50.8)	861(34.0)	4.71
보호	64(9.6)	54(10.5)	37(10.1)	155(6.9)	4.23
경제적 지원	67(10.1)	52(10.1)	46(12.5)	165(7.4)	4.04
문화 · 예술 · 체육	84(12.6)	85(16.5)	53(14.4)	222(9.9)	4.20
의료	30(4.5)	27(5.3)	28(7.6)	85(3.8)	4.03
법률	30(4.5)	14(2.7)	10(2.7)	54(2.4)	4.20
기타	19(2.9)	7(1.4)	1(0.3)	27(1.2)	-
계	967(100)	721(100)	547(100)	2,235(100)	-

▶ 학교와 기관 간의 가장 적절한 연계형태

- 학교 담당자들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연계형태는 학교에서 학생을 기관에 연계해주는 형태로 나타남. 다음으로 기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91.9%)'하는 형태, 기관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 또는 욕구를 반영(91.5%)'하는 형태, '개별 학교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83.9%)'하는 형태 등의 순으로 응답 되었으며 가능성 면에서도 필요성과 유사한 순서로 조사되었음.
- 학교와 기관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연계 형태 조사에 있어서 본 결과는 학교와 기관의 의견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양 기관의 이러한 유사한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하여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하는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6] 학교와 기관 간의 가장 적절한 연계형태

구분	필요성		가능성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가능하지 않음	가능함
기관에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함	25.1	74.9	36.6	63.4
학교에서 학생을 인계함	4.7	95.3	13.7	86.3
개별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16.1	83.9	39.8	60.2
연합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22.7	77.3	38.3	61.7

구분	필요성		가능성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가능하지 않음	가능함
기관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학교 의견 반영	8.5	91.5	23.0	77.0
기관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 학교 의견 반영	8.1	91.9	23.4	76.6
학교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기관 의견 반영	18.6	81.4	32.6	67.4
학교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 기관 의견 반영	21.0	79.0	35.0	65.0
기관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18.6	81.4	40.1	59.9

▶ 학교와 기관 간 연계사업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

- 학교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기관 간 연계사업 운영의 어려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은 학업중단 예방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이 부족함(5점 만점, 평균 3.98점)’으로 응답됨. 다음으로 ‘연계 가능 시기가 한정적임(3.85점)’, ‘지역사회 내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다양하지 않음(3.82점)’ 등의 순으로 응답됨.

▶ 학교와 기관 간의 연계사업 운영의 필요요인

- 학교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기관 간의 연계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은 ‘지역사회 내 연계할 수 있는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와 ‘지역자원과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가 5점 만점, 평균 4.44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분석

▶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업중단 예방 담당 교사의 노력

- 광주, 당진, 경주 소재 고등학교 3곳과 강원도 및 대구 소재 2개 중학교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 각 학교들은 학업중단 예방 업무의 과중과 동료교사의 협조부족, 학교 내 자원의 부족,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가진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에서 연계하고 있는 자원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 내 사설 상담센터, 카페, 학원(미용, 컴퓨터, 제빵 등), 의료기관 등 민간 기관과의 연계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원 연계와 관련하여 나타난 장애요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음.

▶ 지역사회의 요구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연계 활성화

-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성인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례를 조사함.
- 두 위탁교육기관 모두 지역사회로부터 발생한 요구를 교육청이 수용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새로운 연계형태를 만들어 낸 사례로 볼 수 있음.
- 치유형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성인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발생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시작점으로 작용하였음.
- 현재 각 학교들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치료적 개입과 함께 일반 교육과정과 대안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연계된 학생들의 90~100%가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과 가용 자원의 열악함으로 지역사회 및 교육청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유관기관의 노력

-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천 Wee센터, 경산 Wee센터 사례를 조사하였음.
-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역 내 지원청의 학업중단예방지원단 운영과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청별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목록을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학업중단예방지원단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의 경우 학교로부터 연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생, 전문직업인, 상담관련 전공자 및 실무자와 같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멘토링, 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정책제언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필요성 및 주요 어려움

-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는 다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였음.
 - 교내 부족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완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을 취사선택함으로써 학생 개별 요구에 맞춘 경험과 서비스 지원이 가능.
 -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상담과 정신과적 진로 지원 영역에서 두드러졌음.
- ▶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자원 간 연계는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었음.
 - 학교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기관의 신청 절차 등이 연계를 어렵게 함.
 - 학업중단 예방 업무에 대한 교내의 지원과 인식 부족.
 -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 간 지역자원의 양과 질적인 차이.
 - 연계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학생 외부활동 지도의 어려움.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부서 및 인력배치를 통한 연계 거점 역할 수행.
 - 학교 내 학업중단 예방 담당교원들이 느끼는 '연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된 교사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음.
 - 학교 및 담당교사에게 대외 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연계 관련 문제는 담당교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가'의 문제는 교내 학업중단 예방 담당교사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본격 시행 전으로 교육부에서는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에서는 부서나 인력배치가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
 - 연구를 통하여 연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 향후 신설될 교육청/지원청 조직 및 담당자가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자원의 계속적 발굴과 검증.
- 즉각적인 연계 주선(신청 절차상의 기관 간 다름과 어려움을 극복).
- 학교와 지역자원이 협력하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 수행과 지원.

▶ 온라인 서비스와 자원 맵 개발 및 보급

- 지역별로 지역자원은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인구 규모 및 지역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지역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비해 즉각적인 연계 및 다양성에 한계가 있음.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만 지역자원의 양적·질적 차이를 보완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일방향의 강의 형태로는 탄력적이고 실재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국내외 도입되고 있는 양방향적 혹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 교내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자들은 특히 연계가 더 필요한 자원영역으로 '상담'을 들었고,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가 '상담'이었음.
- 원목록이 활발히 업데이트 되고 공유된다면 필요영역과 제공영역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실제 연계활성화 정도는 낮은 불일치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참고] 경기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 자원목록」에는 지역청별로 가용 자원을 소개하고 있고, 안산시에는 매년 「복지자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음.
- 목록에 특히 포함되어야 할 정보로는 신청조건 및 제한조건, 프로그램 접수 방법 및 시기, 프로그램 운영 시기(방학 중, 학기 중 혹은 주말 운영 여부 등)임.
 - 상세 정보로 프로그램 회기 수, 담당 인력의 직종 등 추가 정보 등이 의견으로 나오기도 하였으며, 기존 자원 맵 및 목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보다도 업데이트 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및 학생 참여 절차 간소화

- 연계가 활발히 되고, 성과도 도출하고 있는 우수사례 조사결과에서 특히 연계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와 서류 업무 준수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생 안전 대책, 외부활동으로 인한 출석 인정, 연계 과정에서의 학년 및 학급 담당교사와의 협의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학부모에 참여 동의를 받는 부분, 학교장에게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교내 구성원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아울러, 지역자원 신청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혹은 다소 관성적으로 유지되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도 있음.
 - 실질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도 '관내 청소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소득수준 제한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신청/접수 기간이 학사 일정과 맞지 않거나 지나버린 경우, 특히 '관내'는 '시'인 경우가 많으나 기관에 따라서는 드물게 '동' 단위인 경우도 있고, 주소지 및 실생활권 등 기준도 다양하였음.
- 학교와 지역기관, 중앙과 지자체 모두에서 학생 참여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데, 먼저 '문서' 효율화가 우선되어야 함.
 -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과 중복적으로 작성·제출 해야 하는 서류는 찾아 삭제하며, 의무 요구 절차와 서류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또는 전담 회의기구 설립

- 학업중단 예방 업무담당자들은 학교와 지역자원 간의 연계에 있어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 가능한 현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우수사례들은 연계가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Wee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처럼 하나의 체계로서 자리 잡고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줌.
 - 속초 S 중학교의 경우 지역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기관이 직접 학교 및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형태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협의체 또는 전담 회의기구 설립을 통해 사례 회의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연계 가능한 자원기관의 목록 리스트를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기관의 경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사례 발굴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음. 정책 중복수혜와 사각지대를 예방에도 기여할 것.
- 학생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이 통합되며 제공되는 ‘학생맞춤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통합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별 소모임도 병행하는 형태가 필요함.
 - 지자체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지역협의체’, ‘이주배경 학생 지원 협의체’ 등 각각의 협의체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으로서의 지역기관은 다시 중복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통합된 하나의 중앙협의체와 학생 및 학교 상황에 맞는 분과별 소모임 형태를 제안함.

참고문헌

- 김성은, 송원일, 최홍일, 배수인(202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방안(연구보고 21-R6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효준, 양경은(2018). 이주민 밀집지역 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효과: 교사의 어려움 경감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3, 81-99.
- 이윤진, 김광병(2024). 학생의 사회권 확대를 위한 학교의 역할과 로컬거버넌스 확립 방안: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7(2), 179-197.
- 정현주(2015).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247-279.
- 황영애(2024).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실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교사회복지, 68, 29-62.
- Scott, W. R., & Davis, G. F. (2014). Organizations and organizing: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erspectives, London, UK: Routledge.
- 관계부처합동(2023.11.27).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index.do>에서 2015년 6월 20일 입출.